

창작공간, 갤러리, 카페테리아로 구성된 광주 양림동 '이이남 스튜디오'.

<이이남 스튜디오 제공>

미디어아트 허브, 이이남 스튜디오 개관

멀리 보이는 건물 2층 허공에 예수와 마리아 조각이 매달려 있다. 미디어아트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의 일부다. 이 설치 작품은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만나는 '피에타'상과 어울려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된다. 지난 2014년 서울 가나아트 개인전 때 선보였던 이 작품은 조각상이 설치된 '건물'과 한몸처럼 어울려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근대문화의 보물창고 광주 남구 양림동에 현대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다. 첨단 기술을 작품에 접목하는 미디어아트스트 이이남 작가의 스튜디오다.

전 세계 전시장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 작가는 "앞으로 모든 신작은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후 서울로, 세계로 나갈 것"이라며 "스튜디오를 미디어아트의 허브, 교두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미디어아트 대중화를 위한 의미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공식 개관한 이이남 스튜디오(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10)는 이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와 미디어아트 뮤지엄(M.A.M), 미디어카페테리아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총 700평 부지, 지하 1층, 지상 2층, 옥상 루프탑으로 구성된 스튜디오는 세자레나 설계자가 바뀌는 우여곡절을 거쳐 박태홍 건축가가 맡아 완성했다.

스튜디오가 들어선 곳은 호남신학대 기숙사 바로 옆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던 피터슨 선교사 사택 터다. 이후 이 곳은 신광약품이 오랫동안 사용했고 이 작가는 3년 전 건물

을 매입,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해왔다. 신광약품 외관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링한 스튜디오는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다. 카페와 건물 곳곳에는 이 작가의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조각 작품을 설치했다. 거친 노출 콘크리트 등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살린 건물의 1층 중앙에 들어서면 하늘이 울려다 보인다. 1층에서 옥상까지 뚫어 오픈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건축사의 제안에 이 작가는 작품 '다시 태어나는 빛'을 곧바로 떠올렸다. 쏟아지는 자연광을 한 몸매 받고 있는 슬픈 표정의 피에타상이 인상적이다.

카페와 전시실 등을 오고가는 통로 역할도 하는 중정 형태의 오픈 공간에서도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곳은 세미나,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열기 적합한 공간이다. 220평에 규모의 메인 전시실은 이 작가의 신작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다. 작품 설치와 공간 조성 문제로 당분간은 운영되지는 않으며 대신 스튜디오 입구 쇼윈도우 갤러리에 신작 '빛을 넘어서(Beyond the Light)'를 설치했다.

지난달 말 미리 문을 연 카페는 SNS 등을 통해 이미 입소문이 나며 핫 스팟으로 자리했다. 카페 곳곳은 또 하나의 전시장이다. "커피 마시러 왔다 미디어 아트 전시를 보게됐다"는 말이 듣고 싶다는 그의 의도는 적중한 듯하다. 1층에는 8개 모니터로 구성된 '고전회화 해피니스' 연작이 설치돼 있으며 2층에서는 다채로운 디지털 병풍을 만날 수 있다. 특히 2층은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야외 공간과 연결돼 있어 인기가 높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양림동 풍경이 한

눈에 보인다. 커피 한 잔 들고 바람을 맞으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다.

스튜디오 외관도 다채롭게 꾸며진다. 앞으로 외부 벽면에는 LED 미디어 월(Media Wall)을 설치해 야외에서도 미디어아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양림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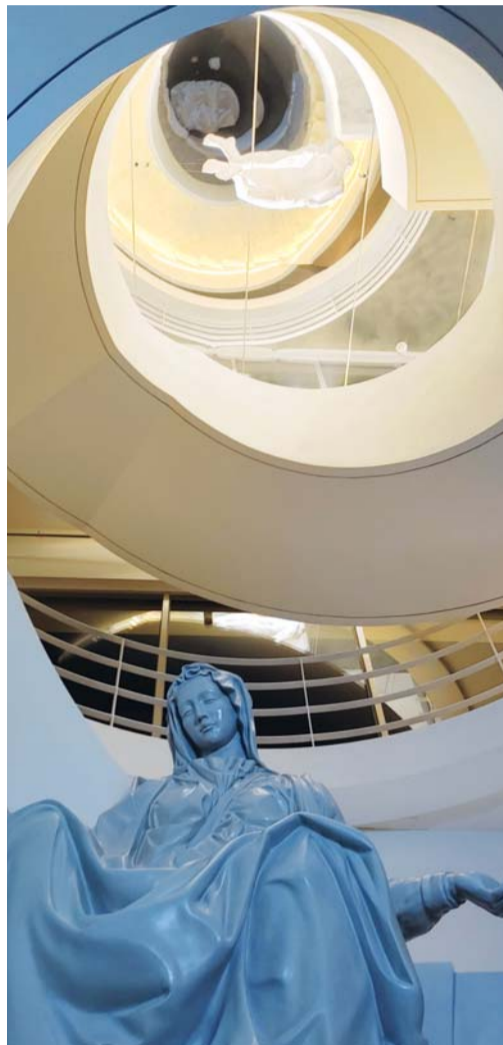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작가와 스텝들의 작업실 공간도 인상적이다. 공간을 빙 둘러 설치한 원형 형태의 책장에는 예술 관련 수많은 책이 꽂혀 있으며 그가 수집한 다양한 소품과 미디어 아트 작품도 어우러진, 답소를 나누는 공간도 눈길을 끈다.

미술관은 앞으로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62-655-5030. 연중무휴 오전 11시~밤 10시.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leeleenam studio

광주 양림동에 오늘 문 열어
창작공간·갤러리·카페테리아
외부벽면에 LED미디어 월 설치
"신작, 이 공간서 먼저 선보일 것"



이이남 스튜디오에 전시된 '다시 태어나는 빛'



다양한 미디어 작품을 만나는 카페테리아

전남도립국악단 유민희·정선옥 국악대회 대통령상 잇따라 수상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류형선) 유민희, 정선옥 단원이 국내 국악대회에서 잇따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유민희

유민희 단원은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24회 송남갑 판소리·고수대회 판소리 부문에서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정선옥

2010년 전남도립국악단에 입단한 유 단원은 목원대학교한국음악학부를 졸업하고 이난초 선생에게 흥보가, 춘향가, 심청가를 사사 받았으며, 제41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 단원은 "대통령상 수상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판소리 다섯바탕을 모두 완창할 때까지 주저앉지 않고 곳곳이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29회 땅끝해남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는 정선옥 단원이 명인부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96년 전남도립국악단에 입단해 현재 기악부 수석을 맡고 있는 정 단원은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와 원광대학교 국악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원주전국국악대전 기악부 부문 장원, 영광법성포도잔치전국국악경연대회 명인부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탄탄한 연주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정 단원은 "11살 때 처음 가야금을 시작해 올해로 37년이 됐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소리, 새로운 색깔을 찾아가는 연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

11일, 이영경 작가 초청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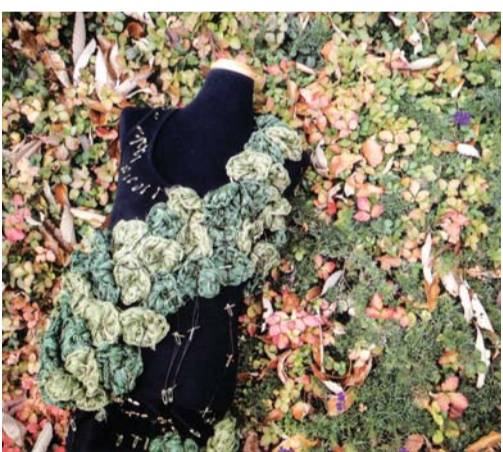
(사)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는 시민들에게 그림책을 읽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 강사는 이영경 작가. 이 작가는 '그림책 속의 작가정신'을 주제로 그림책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이영경 작가는 그림책 속에 우리나라 전통 풍습과 민화를 많이 담았으며 색채와 그림에서 해학과 즐거움이 묻어났다는 평을 듣고 있다. '아씨방 일곱둥지', '낙 점 반' 등의 작품을 펴냈다.

한편 대한독서문화예술협회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대학에서 '아는 맛, 삶의 맛'의 테마로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교육'과 '생각을 키워주는 어린이 청소년 인문학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 참가신청은 선착순 40명이며 10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 010-8602-2931.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름달 나흘'

'기다림, 가을로 물들다'

장소영 교수 의상·사진전... 22일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

직접 디자인해 제작한 의상과 이 작품을 자연 속에서 촬영한 사진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전시회가 열린다.

장소영 호남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의 5번째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에서 열린다. '기다림, 가을로 물들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6점의 의상과 경남 남해의 숲속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장 교수는 몇년 전 가을 남해 바람흔적미술관에서 작품 전시를 한 후 미술관 인근에서 작품을 직접 사진 촬영했다. 전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마침 제작한 의상이 가을 풍경과 어울린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기회가 되면 전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장 교수는 도심 속 화이트 큐브 갤러리가 아닌,

자연 속 전시장을 염두에 두고 1년전 예약을 하며 전시를 준비했다.

전시 의상은 다채로운 색깔의 가죽, 폴리에스테르, 니트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했다. 각각각색의 털뭉치를 마치 나무 피라리처럼 원피스에 부착해 신선한 느낌을 주며 일일이 손주름을 잡아가며 실루엣을 만든 작품도 눈에 띈다.

작품 사진에는 붉은 단풍과 잔잔한 호수, 바스락대는 낙엽, 잎을 떨근 고목 등이 어우러진 가을 풍경을 담았다.

전시중에는 의상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머그컵과 텀블러도 판매한다.

/김민은 기자 mekim@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도굴
3관	도굴, 소리도 없이
4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6관	도굴
9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7관 씨네커튼	담보
8관 씨네커튼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소리도 없이 미스터리웃: 더 무비, 아이 빌리브 나인스 게이트: 아홉 번째 살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작가공모 전시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코리안 집시 '상자루의 길'
2020. 11. 1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정문여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